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습과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영희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The Influence of Peer Supported Learning and Grit on Academic Self-Efficacy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Yeong-Hee Kim
Jinju Health College Nursing Department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G시의 간호학생 164명 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 까지였다. 자료는 SAS 9.3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F=6.47, p=.000$), 실습수업 만족도($F=5.50, p<.001$), 자율실습 참여도($F=3.00, p=.020$), 자율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F=4.02, p=.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지지학습($r=.322, p<.001$)과 그릿($r=.64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동료지지학습은 그릿($r=.3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beta=.608,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beta=.180, p=.003$)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44.0%였다.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그릿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95, p<.001$). 따라서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실습교육에서의 그릿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시 동료지지학습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학습을 촉진하도록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므로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factors that influence academic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64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y 30 to June 3, 2022.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9.3. Nursing student academic self-efficacy differed significantly from satisfaction with their nursing major ($F=6.47, p=.000$), satisfaction with their practicum classes ($F=5.50, p<.001$), and participation in self-practice ($F=3.00, p=.020$),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eed to write a self-practice diary($F=4.02, p=.004$). Academic self-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er-supported learning ($r=.322, p<.001$) and grit ($r=.645, p<.001$), and peer-supported learn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it ($r=.354, p<.001$).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elf-efficacy were grit ($\beta=.608, p=.000$) and satisfaction with the fundamental nursing lab class ($\beta=.180, p=.003$), which in combination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4.0%. Factor analysis of peer-supported learning,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showed that a higher level of grit was associated with greater academic self-efficacy ($\beta=.795, p<.001$). The study show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at enhance grit in practical education and improve nursing student academic self-efficacy. Furthermore, promot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through peer-supported learning might enhance class participation.

Keywords : Education, Fundamental Nursing, Learning, Nursing Students, Peer

본 논문은 2023년도 진주보건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eong-Hee Kim(Jinju Health College)

email: gyumdung20@naver.com

Received June 13, 2023

Revised July 27,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실습교육은 간호학 실습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학생들은 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기술을 연습하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실무자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 핵심 기술을 연습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1].

학교에서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간호기술은 신규간호사들의 반복적인 재교육의 필요성과 실습지 부족 등의 제반 실습교육 환경 변화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간호 기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실습교육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2]. 이에 실습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는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는 실습을 통한 수행과 성찰의 기회를 유일하게 교육하는 교과목으로 수행 경험이 간호직업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직업의 정체성은 바로 간호대학시기에 형성되는데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미래성과 및 학업성취에 대한 강력한 예측 변수이기도 하다[3].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에 대한 숙달 경험과 교실 환경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영향을 주므로[4]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실습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 조성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학습 환경은,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크게 강화되기도 한다[5-7].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은 실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습 환경은 직업정체성 향상과 지식과 기술을 숙달시키도록 하여 학업성취감을 향상시키므로[8]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로 이론 교과목에서의 사례기반학습[9], 임상실습 및 임상수행능력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등이 있다[10,11]. 그러나 저학년 간호학생들의 필수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실습교육을 위해 동료 교수학습법, 또래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동료 교수학습법은 불충분한 준비와 정보로 인해 학습자의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12], 또래 교수학습법은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래의 학습스타일을 파악해야 효과적인 것으로 대두되었다

[13]. 이에 비해 동료지지학습은 처음 실습 기술을 배울 때 유용하며[14],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피드백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통해서 상호학습을 촉진하게 된다[15].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실습 교육은 수업참여를 돕게 되고[16] 실습교육 방향을 효율적으로 제시해준다[15]. 이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 간의 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주며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기 때문이다[17].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는 또한 그릿이 있다[16].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되며 특정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속성으로서 보건 전문직에서의 성공과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다[16]. 이처럼 그릿은 학습 성과 달성 및 주체적인 학습을 위한 주요 변인이기도 하면서, 간호대학생의 학업능력과 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16,18] 따라서 실습교육에서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학업성취도 수준을 높이고 학교생활의 성공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릿을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16,19].

따라서 올바른 직업 정체성 형성을 위해 동료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간호 전문성이 형성되도록 다양한 실습 교육 방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20]. 이에 기본간호학 실습 교육방법은 학생이 실습교육과정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참여하도록 해서 실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2]. 간호핵심 역량을 갖춘 간호사 배출을 위해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방법을 통해서 향후 간호사로서의 간호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습과 그릿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간호학생 대상의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의 실습교육 효율화를 위한 주요 촉진 변인으로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실습교육 효율화를 위한 지도전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동료지지학습, 그릿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2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대상으로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G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부 2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선행 연구[21]에서 제시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를 고려하여, G-Power3.1.9.7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중간효과크기(0.15), 검정력($1-\beta$) 0.95, 예측변수 6개를 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46명이었다. 20%의 탈락율과 80%의 응답율을 고려하여 총 190부를 배부하였으며, 내용이 불충분한 자료 26부를 제외한 총 164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동료지지학습

동료지지학습은 Cutrona과 Russel(1987)이 개발한 도구를 Yu와 Cho(2018)[22]가 타당도 검증을 통해 20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인 애착(4문항), 사회적 소속(4문항), 돌봄의 기회(4문항), 신뢰로운 동맹(4문항), 조언(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지지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u와 Cho(2018)[22]의 연구에서 Chro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bach's α 는 .96이었다.

2.3.2 그릿

그릿은 Duckworth 등(2007)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Sohn(2013)[2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2개의 하위 요인인 노력의 꾸준함(6문항), 관심의 일관성(6문항)으로 구성된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Lee와 Sohn(2013)[23]의 연구에서 Chro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bach's α 는 .90이었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2001)[2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10문항), 자신감(8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Park(2001)의 연구에서 Chro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hrobach's α 는 .95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6월 3일까지 이었다. 대상자는 한 학기 이상의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한 간호대학생 2학년으로 설명문과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배부하였다. 연구 취약 대상자인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간 대상 연구 윤리교육을 이수하였고 CIOM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모집 방법으로는 연구참여에 대한 공지를 교수자가 할 경우 취약한 대상자인 학생은 동의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연구보조자 1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 후에 참여 대상자에 한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연구결과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도 설명하도록 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밀봉하여 회수하였으며 응답결과는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계정 드라이브에 보관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SAS

9.3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했다.

둘째,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했다.

넷째,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했다.

다섯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with Stepwise Method로 분석했다.

여섯째, 변수들 간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제 특성별 학업적 자기효능감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82.3%), 간호학부 선택 동기는 취업(45.1%), 졸업 후 진로는 병원(78.7%)순이었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보통(41.5%),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는 만족(45.7%), 자율실습 만족도는 만족(37.8%), 자율실습 참여도는 보통(36.6%), 자율실습일지 작성 필요성은 보통(46.3%)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학 전공 만족도($F=6.47,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F=5.50, p<.001$), 자율실습 참여도($F=3.00, p=.020$), 자율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F=4.02,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할수록, 자율실습 참여도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군, 적극적인 군에서 보통인 군, 수동적인 군, 매우 수동적인 군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에서는 매우 필요 군, 필요 군에서 보통인 군, 불필요 군, 매우 불필요 군 보다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동료지지학습은 평균 $4.27(\pm 0.61)$ 점, 그릿은 평균 $3.32(\pm 0.71)$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24(\pm 0.7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Peer Supported Learning, Grit, Academic Self-Efficacy (N=164)

Variables	Categories	M±SD.
Peer Supported Learning	Attachments	4.27±.68
	Social belonging	4.21±.66
	Opportunity to care	4.16±.64
	Trusted alliance	4.38±.62
	Advice	4.32±.64
	All	4.27±.61
Grit	Effort Continuous	3.18±.81
	Interesting Maintain	3.46±.75
	All	3.32±.71
Academic Self-Efficacy	Self-control efficacy	3.19±.93
	Assignment difficulty preferred	3.51±.71
	Confidence	3.00±.88
	All	3.24±.70

3.3 대상자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지지학습($r=.322, p<.001$)과 그릿($r=.645,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료지지학습은 그릿($r=.354,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er Supported Learning, Grit, and Academic Self-Efficacy (N=164)

Variables	Peer Supported Learning	Grit	Academic Self-efficacy
	r (p)		
Peer Supported Learning	1		
Grit	.354 (<.001)	1	
Academic Self-efficacy	.322 (<.001)	.645 (<.001)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fferences of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cademic Self-Efficacy	
			Mean(SD)	t/F(p)Scheffe
Gender	Female	135(82.3)	3.20±.66	-1.38(<.177)
	Male	29(17.7)	3.43±.87	
Motivation of Admission	Aptitude	33(20.1)	3.33±.69	.28(<.923)
	Employment	74(45.1)	3.19±.74	
	Recommendation	26(15.9)	3.24±.78	
	Good feelings	23(14.0)	3.29±.61	
	School grade	5(3.0)	3.10±.49	
	Mission	3(1.8)	3.37±.42	
Career Fields	Hospital nurse	129(78.7)	3.25±.71	.91(<.460)
	Healthcare teacher	6(3.7)	2.97±.53	
	Government employees	19(11.6)	3.09±.68	
	Graduate school	2(1.2)	3.43±.96	
	etc.	8(4.9)	3.57±.75	
Nursing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a	3(1.8)	2.99±.46	6.47(<.000) d,e>a,b,c
	Dissatisfaction ^b	11(6.7)	3.06±.88	
	Moderate ^c	68(41.5)	3.24±1.56	
	Satisfaction ^d	65(39.6)	3.38±.69	
	Very satisfaction ^e	17(10.4)	3.81±.85	
Practice class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	6(3.7)	2.77±.51	5.50(<.001) d>a,b,c
	Moderate ^b	52(31.7)	3.03±.54	
	Satisfaction ^c	75(45.7)	3.27±.73	
	Very satisfaction ^d	31(18.9)	3.59±.75	
Self practice Satisfaction	Very dissatisfaction	3(1.8)	2.93±1.25	2.23(<.068)
	Dissatisfaction	10(6.1)	2.98±.58	
	Moderate	61(37.2)	3.15±.59	
	Satisfaction	62(37.8)	3.24±.73	
	Very satisfaction	28(17.1)	3.56±.78	
Self practice Participation	Very passive ^a	11(6.7)	3.03±.61	3.00(<.020) d,e>a,b,c
	Passive ^b	34(20.7)	3.14±.60	
	Moderate ^c	60(36.6)	3.15±.67	
	Active ^d	37(22.6)	3.51±.81	
	Very active ^e	22(13.4)	3.43±.79	
Self practice diary required	Very not required ^a	14(8.5)	3.06±.56	4.02(<.004) d,e>a,b,c
	Not required ^b	28(17.1)	3.21±.66	
	Moderate ^c	76(46.3)	3.34±.79	
	Required ^d	34(20.7)	3.44±.77	
	Very required ^e	12(7.3)	3.76±.96	

* p<.05, **Scheffe test: Means with th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3.4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동료지지학습, 그것과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학 전공 만족도,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 자율실습 참여도, 자율

실습일지 작성의 필요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선형성, 표준화 예측값,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상에서 정규성과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7로 2에 근접하여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공차 한계

값은 .67~.87, 분산팽창인자 값은 1.151~1.493에 분포되어 있어 10을 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도 0.8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64.90, p<.001$),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릿($\beta=.608, p=.000$),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beta=.180, p=.003$)가 포함되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이들 변인의 총 설명력은 44.0%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Factor Influencing on Academic Self-Efficacy (N=164)

Variables	B	SE	β	t	p	R ²
(constant)	.634	.256		2.480	.014	.446
Grit	.601	.059	.608	10.141	.000	
Practice class Satisfaction	.161	.054	.180	2.998	.003	
Adjusted R ² =.440, F=64.90, p<.001						

3.5 동료지식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 분석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증은 X²통계량, 기조 적합지수(GFI), 근사원소평균제곱잔차(RMSEA), 터커-루이스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표본부합지수(NFI), 조정적합지수(AGFI)를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²은75.657(p<.001), GFI .90, RMSEA .09, TLI .95, CFI .96, NFI .90, AGFI .85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지식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즉 그릿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95, p<.001$)[Table 5].

Table 5. Factor Analysis

(N=164)

path	B	β	S.E.	C.R.	p
P→A	.039	.036	.083	.464	.643
G→A	.897	.795	.126	7.146	***

A: Academic Self-Efficacy
 P: Peer Supported Learning
 G: Grit
 ***p<.001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동료지식학습과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의 효율화 지도전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2학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학년 대상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 3.14점보다는 높았으나[21], 2학년 대상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 3.42점인 연구[25], 전체 학년 대상의 3.64점[26], 3-4학년 대상의 3.32점[11]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는 2학년 이상의 고학년 대상이지만 본 연구는 2학년 한 학기 동안의 저학년 대상의 연구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수행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동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6]. 특히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간호학실습 교육환경은 동료와 함께 하며 반복적인 실습활동을 통해서 협동하고 노력하게 되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수가 실습교육의 참여를 유발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1학년 간호학생 120명 대상으로 맥박측정, 약물준비와 피하주사 간호기술을 배우기 위해 동료지지가 간호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국외연구에서는, 첫 임상기술을 배우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14].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간호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것으로[27], 이집트 2학년 간호대학생 324명의 연구결과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크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개발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27]. 또한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11명의 학생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동료에게 지지를 받을 때 자기효능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8].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과제난이도 선호가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동료와의 지지관계를 통해 실습실에서의 배움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각종 수시고사 및 실기평가에 대비하면서 학업성취를 이루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테헤란 의과대학생 385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와 견주어보면, 학습 환경은 학생의 학업성취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크게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예측인자로 바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므로[27], 동료지지와 함께 성취 지향적 교육환경을 통해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고 실습수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율실습 참여도가 높고 자율실습 일지 작성은 필요하다고 할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의 연구[25]에서는 실습수업 만족도와 자율실습 참여도, Lee의 연구[10]에서는 학업성취도와 학과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율실습일지 작성과 참여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과제를 완수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3] 자율실습을 통한 동료와의 지지와 피드백 그리고 격려와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학생들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학업에 대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므로[3], 자율실습과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한 실습일지 작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습실 교육은 임상에 가기 전에 실수를 허용 할 수 있고 대상자 간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29]. 이를 위해서는 실습실에서 동료의 지지를 받으면서 불안하지 않고 위험 없이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습의 기회를 주는 실습으로 자율실습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지지학습과 그릿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서의 3가지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동료지지[27]와 동료지지는 심리적 안녕감[22]과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10,11,26]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동료지지학습의 점수는 4.27점으로 하위 영역 중 신뢰로운 동맹이 4.38점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실습 교육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와의 관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5]. 이러한 신뢰가 형성된 관계는 동료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17]. 본 대학에서는 2학년 교과목에서 유일한 실습교과목이 기본간호학실습이다. 실습실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간호기술을 연습하고 배우는 장으로 여기게 되어 비교적 동료지지학습 점수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의과대학생 279명 대상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연구[3]에서 학생들이 경쟁적인 학습 환경 보다는 수업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해서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게 할수록 학습 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의 질이 바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3], 교수자는 학생의 수업참여를 위해 학생들 간의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팀워크 성과를 높이는 학습방법도 필요 할 것이다. 이 같은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습실에서 기술을 교육하는 9명의 학생 튜터와의 인터뷰 결과에서[29], 동료 대상의 교육은 지식과 전문성 및 기술을 동시에 공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료학습은 학생들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편안한 학습 환경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29]와 같이,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도 동료지지학습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실수를 해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동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전략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의 실습 교육환경이 동료지지학습으로 볼 수 있다[17]. 본 연구에서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은 실습 조를 구성하여 상호간에 실습할 때 동료의 실습 내용을 관찰하면서 동료의 강점을 지지하고 교정이 필요한 학습내용은 조원 간에 시범을 보이면서 수정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동료 간의 의도적이고 집중적인 피드백과 이를 통한 성장의 기회는 생산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14]. 그리고 동료지지를 통한 협력적인 관계는 상호학습을 촉진하게 되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기술 습득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14,15]. 이러한 실습실에서의 참여를 장려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해서 간호학생의 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그릿, 기본간호학실습수업 만족도 순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4.0%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그러므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지지학습, 그릿,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 결과 그릿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학생의 그릿 점수는 3.32점으로 전 학년 대상의 그릿 점수 2.25점[26], 3-4학년 대상의 그릿 점수 2.97점[10]보다는 높았고 3-4학년 대상의 그릿 점수 3.41점[11]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미국의 약학대학생의 그릿점수는 학점평균이 3.5이상인 학생에게 유의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그릿점수는 3.7점으로 특히 그릿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기술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간호교육에서 실습실 환경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간호 기술 부족 및 기자재 사용의 미숙함 등이며 이러한 스트레스 노출은 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그릿은 학업 및 직업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어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16]. 이처럼 그릿은 학생의 학업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도전을 향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서 장기목표를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16, 19]. 따라서 의료인 교육에서는 그릿을 가르치거나 심어줄 수 있는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16],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학업 환경을 조성하여 학업의 성공과 개인 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릿은 또한 학업에 대한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9]. 선행연구에서는 동료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고[27], 그릿은 학업적 자기효능감[26]에, 임상수행능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11]에,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10]이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그릿은 간호학생의 성공을 예측하고 개인의 안녕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16], 그릿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 분석 결과 그릿의 다음 요인으로는 기본간호학실습 수업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 요인이며[21], 간호전문직관과[25]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2]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와 함께 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 교육과정은 술기능력의 증진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실습교육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에 임하게 되어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서[2] 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기술의 증가에 의해 향상되므로[25] 학생들의 적극적인 실습교육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경험 축적 및 내외부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25] 단기성 연구만으로는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각적인 교수학습 전략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습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그릿에 상호 관련이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그릿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 저학년 대상의 첫 교내실습 교과목인 기본간호학 실습에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습교육의 참여는 전공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는 간호사로서의 태도와 간호기술을 향상시켜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와의 긍정적인 감정은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업성취를 강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론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핵심기술을 배우고 발달시켜서 향후 임상에서의 적응력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그릿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에게 역할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주거나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모델로서의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그릿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릿문화를 학교와 동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입학초기부터 교과목 개설이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동료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강화될 것이고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어 간호사로서의 미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중 간호학생이 일부 지역의 일개 대학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편의 표집되었다. 그리고 타 대학과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으며 2학년 한 학기에 적용된 교육만으로는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및 영향요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일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 학생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 교육에서의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조사연구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료지지학습, 그릿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상호 관련이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릿과 기본간호학실습 수업만족도로 설명력은 44.0%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 간에 경쟁이 아닌 협동을 하게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건설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료지지학습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학습을 촉진하도록 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므로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성과를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릿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료지지학습을 활용한 기본간호학실습교육 방법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극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학생 중심의 간호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릿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학습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실습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실습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간호 교육적 측면에서는 획일적인 실습교육방법이 아닌 능동적이고 동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한 참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그릿과 기본간호학실습수업 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습자의 교육 선호도를 파악하여 혁신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N. Brooks, A. Moriarty, "Implementation of a peer-support system in the clinical setting", *Nursing Standard*, Vol.23, No.27, pp.35-39, 2009.
DOI: <https://doi.org/10.7748/ns2009.03.23.27.35.c6836>
- [2] G. H. Choi, S. H. Kwo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on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5, PP. 626-635,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5.626>
- [3] A. A. Hayat, K. Shateri, M. Amini, N. Shokrpour,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related emotions, and meta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with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MC Medical Education*, Vol.20, No.76, 2020.
DOI: <https://doi.org/10.1186/s12909-020-01995-9>
- [4] S. Hood, N. Barrickman, N. Djerdjian, M. Farr, R. J. Gerrits, "Some believe, not all achieve: The role of active learning practices in anxiety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icrobiology & Biology Education*, Vol.21, No.1, 2020.
DOI: <http://doi.org/10.1128/jmbe.v21i1.2075>
- [5] O. M. Al Nozha, H. Fadel, "Student percep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regular and bridging nursing programs in Saudi Arabia using the dundee ready educational environment measure", Vol.37, No.3, pp.225-231, 2020.
DOI: <https://doi.org/10.5144/0256-4947.2017.225>
- [6] J. N. Hughes, M. H. Im, S. E. Wehrly, "Effect of peer nominations of teacher-student support at individual and classroom levels on social and academic outcom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52, No.3, pp.309-322, 2014.
DOI: <http://doi.org/10.1016/j.jsp.2013.12.004>
- [7] D. A. Wilkerson, V. L. Gregory Jr, H. W. Kim, "Online psychoeducation with parent management training: Examining the contribution of peer support", *Child & Family Social Work*, Vol.25, pp.448-459, 2020.
DOI: <http://doi.org/10.1111/cfs.12701>
- [8] X. Chen, J. Zhong, M. Luo, M. Lu, "Academic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rofessional identity among preservice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china", *Frontiers in Psychology*, Vol.13, 2020.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0.00374>
- [9] J. S. Kim, H. J. Choi, "The effects of case-bas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9, Issue1, pp.141-150, 2021.
DOI: <https://doi.org/10.15268/ksim.2021.9.1.141>
- [10]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cademic self-efficacy,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djustment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4, No.4, PP.170-179, 2023.
DOI: <https://doi.org/10.5762/KAIS.2023.24.4.170>
- [11] Y. S. 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grit and self-efficac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2, No.9, pp.451-460, 2022.
DOI: <https://doi.org/10.5392/JKCA.2022.22.09.451>
- [12] T. K. Srivastava, L. S. Waghmare, V. P. Mishra, A. T. Rawekar, N. Quazi, A. T. Jagzape, "Peer Teaching to Foster Learning in Physiology",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Vol.9, PP.JC1-6, 2015.
DOI: <https://doi.org/10.7860/JCDR/2015/15018.6323>
- [13] H. A. Alharbi, A. F. Almutairi, E. M. Alhelih, A.S. Alshehry, "The learning preferences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king saud university in saudi arabia: A cross-sectional survey",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Vol.2017, 2017.
DOI: <https://doi.org/10.1155/2017/3090387>
- [14] H. Aslan, B. Erci, "The impact of peer support provided to the first-year students of nursing on the clinical stress and psychomotor nursing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14, pp.68-78, 2021.
- [15] N. Campbell, H. Wozniak, R. L. Philip, R. A. Damarell, "Peer-supported faculty development and workplace teaching: an integrative review", *Medical Education*, Vol.53, Vol.10, pp.978-988, 2019.
DOI: <https://doi.org/10.1111/medu.13896>
- [16] J. M. Stoffel, J. Cain, "Review of grit and resilience literature within health professions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Vol.82, No.2, pp.6150, 2018.
DOI: <https://doi.org/10.5688/ajpe6150>
- [17] C. L. Dennis, "Peer support within a health care context: a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0, No.3, pp.321-332, 2003.
DOI: [https://doi.org/10.1016/S0020-7489\(02\)00092-5](https://doi.org/10.1016/S0020-7489(02)00092-5)
- [18] D. Terry, B. Peck, "Academic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What's grit go to do with it?", *Nurse Education Today*, Vol.88, pp.104371, 2020.
DOI: <https://doi.org/10.1016/j.nedt.2020.104371>
- [19] C. S. Kannangara, R. E. Allen, G. Waugh, N. Nahar, S. Z. N. Khan, S. Rogerson, J. Carson, "All that glitters is not grit: Three studies of grit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Vol.9, 2018.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8.01539>
- [20] P. Bimray, K. Jooste, H. Julie, "Professionalism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learner nurses during their 4-year training programme at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the Western Cape, South Africa", *Curationis*, Vol.42, No.1, 2019.
DOI: <https://doi.org/10.4102/curationis.v42i1.2030>
- [21] M. S. Ko,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14, No.2, pp.85-92, 2019.
DOI: <https://doi.org/10.15715/kjhcom.2019.14.2.85>
- [22] J. H. Yu, J. H. Cho, "Influencing of coworker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resilience of nurs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3, pp.733-743, 2018.
DOI: <http://doi.org/10.35873/aimahs.2018.8.3.069>
- [23] S. Lee, Y. W. Sohn,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0, No.3, pp.349-366, 2013.
DOI: <https://doi.org/10.16983/kjisp.2013.10.3.349>
- [24] A. Y. Kim, I.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9, No.1, pp.95-123, 2001.
- [25] Y. H. Kim, "Effect of peer support,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6, PP. 189-197,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6.189>
- [26] M, R, Jung, E. Jeong, "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PP.414-423, 2018.
DOI: <http://doi.org/10.5392/JKCA.2018.18.06.414>
- [27] N. M. Attia, "Grit, self-regulation and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mong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1, pp.130-135, 2020.
DOI: <https://doi.org/10.37506/ijone.v12i1.3720>
- [28] K. H. O'Brien, T. Wallace, A. Kemp, "Student perspectives on the role of peer support following concussion: development of the Success peer mentoring program",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Vol.30, pp.933-948, 2021.
DOI: https://doi.org/10.1044/2020_AJSLP-20-00076
- [29] T. J. Bugai, M. Blohm, C. Schmid, N. Koehl, J. Huber, D. Huhn, W. Herzog, M. Krautter, "Peer-assisted learning (PAL): skills lab tutors' experiences and motivation", *BMC Medical Education*, Vol.19, No.353, 2019.
DOI: <https://doi.org/10.1186/s12909-019-1760-2>

김영희(Yeong-Hee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내실습 및 핵심간호술